

페미니즘, 따로 읽고 같이 말하다

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책읽기로 공부하는 동아리를 찾고 연결하려고 합니다.
독서 동아리들이 함께 읽고 고민할 공통도서를 여러분의 댓글로 뽑아주세요!

투표방식 본원 페이스북 #댓글 #좋아요 (<https://www.facebook.com/gwfri/>)

투표기간 8월 24일(월) ~ 8월 30일(일) (7일간 진행)

- * 투표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8명에게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
- * 당첨자는 추후 본원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공지
- * 투표글을 #공유하면 당첨확률이 두 배가 됩니다 ;)

* 공통도서 선정 후 독서동아리(회원 5인 이상) 모집 예정이니

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어디서

본원 페이스북에서 (<https://www.facebook.com/gwfri/>)

어떻게

페이스북 #댓글 #좋아요 * 추천도서 4권 중 1권만 투표 가능!

<p>추천도서 후보 1</p> <h3>김지은 입니다</h3> <p>김지은 봄달림 2020</p>  <p>김지은씨는 다음 피해자를 찾기 위해 미루를 걸었다고 한다.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 '김지은'은 오랫동안 세상을 향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, 수많은 거짓 속에 숨어야 했다. '김지은'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는 것이, 지금도 무수히 존재하는 위력 속 가해와 피해를 알아차리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? 글을 읽는 동안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,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, 우리 사회의 성장발달의 구조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. 세상의 모든 '김지은'을 위하여 꼭 읽어야 한다.</p> <p>정윤경... 춘천여성인우회 대표</p>	<p>추천도서 후보 2</p> <h3>쌍년의 미학</h3> <p>민서영 위즈덤하우스 2018</p>  <p>별은 형식이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생활 속 페미니즘 책이다.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불편한 순간,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불편한 순간들을 꼭 읽어 보면 내 것으로 통째로 곁어온다. 책을 읽다 보면 사이드처럼 사뭇하고 통쾌하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'쌍년'이 되고 싶어진다. 우리가 두 눈 치켜뜨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, 자기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방진 여자(쌍년)가 되어야 성행동한 세상이 온다. 우리 모두 '쌍년'이 되길 두려워하지 말자!</p> <p>박기남... 한국여성연구소 이사</p>
<p>추천도서 후보 3</p> <h3>200년 동안의 거짓말</h3> <p>비버리 에번리크 다미에레 앙글레시 푸른길 2017</p>  <p>과학은 객관성에 대한 신화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'과학적 근거'를 '발명'해 왔으며, 이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다. 이 책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사회변화와 과학 및 진문기의 역사를 추적하여, 과학이 어떻게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했는지, 과학에 대한 맹신에 토대를 둔 '가부장적 기원'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준다. 과학의 성차별성을 탐색하고, 과학이라는 신화에 도전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여정을 펼쳐 줄 것이다.</p> <p>최혜경... 강원성남영양재단 이사장</p>	<p>추천도서 후보 4</p> <h3>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</h3> <p>김은실 외 휴머니스트 2020</p>  <p>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다. 여성은 의료인, 돌봄 책임자, 취약업, 서비스 노동자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. 코로나19는 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까?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, 어떻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? 이 책은 13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실과 생명, 위험과 안전, 일과 인간의 존엄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의 실마리를 펼친다. 크기도 작고 무게도 알지만 이 책의 질문과 고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.</p> <p>신경아...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</p>

투표는 어떻게 하나요?



추천 도서 정렬 기준은
도서명의 가나다순

추천도서 후보 1

김지은 입니다

김지은
봄알림
2020

김지은 입니다

안희정 성폭력 고발
554일간의 기록

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성범죄 고발 이후 2년,
피해 생존자 김지은이 말한다

김지은씨는 다음 피해자를 막기 위해 미투를 결심했다고 한다.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 '김지은'은 오랫동안 세상을 향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, 수많은 거짓 속에 숨죽여야 했다. '김지은'의 목소리가 널리 읽히고 기억되는 것이, 지금도 무수히 존재하는 위력 속 가해와 피해를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길이 아닐까? 글을 읽는 동안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,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,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. 세상의 모든 '김지은'을 위하여 꼭 읽어야 한다.

정윤경 _ 춘천여성민우회 대표

추천도서 후보 2

쌍년의 미학

민서영
위즈덤하우스
2018



웹툰 형식이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생활 속 페미니즘 책이다.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불편한 순간,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불쾌한 순간들을 콕 집어 웹툰 네 컷으로 통쾌하게 긁어준다. 책을 읽다 보면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통쾌하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'쌍년'이 되고 싶어진다. 우리가 두 눈 치켜뜨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, 자기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방진 여자(쌍년)가 되어야 성평등한 세상이 온다. 우리 모두 '쌍년'이 되길 두려워하지 말자!

박기남 _ 한국여성연구소 이사

추천도서 후보 3

200년 동안의 거짓말

바버라 에런라이크
디어드러 잉글리시
푸른길
2017

과학은 객관성에 대한 신화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'과학적 근거'를 '발명'해 왔으며, 이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다. 이 책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사회변화와 과학 및 전문가의 역사를 추적하여, 과학이 어떻게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했는지, 과학에 대한 맹신에 토대를 둔 '가부장적 기획'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준다. 과학의 성차별성을 탐색하고, 과학이라는 신화에 도전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여정을 펼쳐 줄 것이다.

For Her Own Good
Two Centuries of the Experts' Advice to Women

200년 동안의 거짓말



과학과 전문가는 여성의 삶을 어떻게 조작하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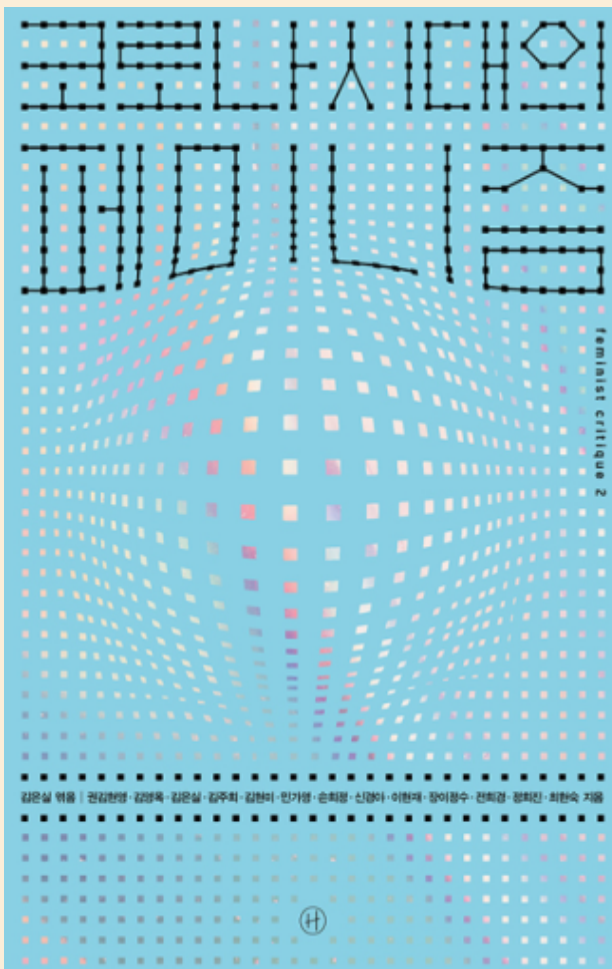
바버라 에런라이크·디어드러 잉글리시 지음
강세영·산영희·임현희 옮김

최혜영 _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

추천도서 후보 4

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

김은실 외
휴머니스트
2020



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지만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다. 여성은 의료인, 돌봄 책임자, 워킹맘, 서비스 노동자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. 코로나19는 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까?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, 어떻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? 이 책은 13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삶과 생명, 위험과 안전, 일과 인간의 존엄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의 실마리를 펼친다. 크기도 작고 두께도 얇지만 이 책의 질문과 고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.

신경아 _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